



제목	The Archaeology of Byzantine Anatolia: From the End of Late Antiquity until the Coming of the Turks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Oxford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7. 4. 14.
저자	Philipp Niewöhner
출판도시	Oxford
페이지수	480
ISBN 또는 ISSN	978-0190610463

내용 요약

이 책은 고대 비잔틴 아나톨리아에 대한 광범위한 참고문헌들을 담고 있어 이를 통해 비잔틴 제국 초기와 중기의 복잡한 도시와 사회 변화에 대한 문헌뿐만 아니라 지중해 유역의 다른 지역들과 폭넓은 비교 연구를 할 수 있는 자료로서, 로마에서 비잔틴까지 기념비적인 건축물로의 전환에 대한 연대기적, 지리적 변수 등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다.

비잔틴 아나톨리아 고고학은 아나톨리아가 고대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분야 중 하나로서 사실상 로마에 대한 고고학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책에서는 로마가 멸망하고 서로마 제국이 붕괴된 5세기에서 11세기까지의 격동기와 동로마 제국의 붕괴와 범 지중해 통치권 상실기까지 다루고 있다. 이 책은 두 개의 장으로 나누어 첫 번째 장에서 비잔틴 아나톨리아의 역사 지리학, 운송수단과 교류, 도시생활, 인간의 유해, 화폐, 시골 거주지, 요새, 집, 수도원, 교회, 바위 건축물, 장례 고고학, 도자기 등 생활 문화 전반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두 번째 장에서는 비잔틴 아나톨리아의 주요 도시 중 북부에 위치한 고대 그리스 시대의 도시니케아(Nicaea), 아소스(Assos), 페르가몬(Pergamon), 사르디스(Sardis), 에페소스(Ephesus), 프리에네(Priene), 밀레투스(Miletus), 아프로디아스(Aphrodisias), 파타라(Patara), 아이자니(Aezani), 아모리움(Amorium) 등 20여 도시의 건축예술 전반을 다루고 있다.